

컨설팅·워크숍... '어촌뉴딜 300' 적극 대응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개선 해수부 당초 70곳서 20곳 줄여 전남도 15곳 이상 선정 목표

전남도가 방파제, 접안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전남도내 지방어항, 소규모 항포구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사업규모가 축소된데다 사·도 평가 및 사업 비전 배경이 상충되는 등 지난해와는 달랐던 기준에 맞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지난 2019년 70개소, 올해 120개소를 선정하는데 이어 연말에는 내년 대상지 50개의 어촌·어항을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당초 대상지 규모가 70개소에서 20개소가 감소하면서 사·도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2년 이후 나머지 60개소를 선정해 모두 3조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2019년 26개소(사업비 2322억원), 2020년 37개소(3750억원) 등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등 공모에 착실히 준비해 높은 실적을 쟁겼다. 전남도는 2021년 공모에서도 50개소

중 15개소 이상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올 초 15개 시·군에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보조금 3억3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83개소(추정사업비 9397억원)의 도내 어촌을 대상으로 8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발족 및 운영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모계획서에 대해 10개소에 대한 1차 컨설팅을 마친 바 있다. 각 시·군의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어촌뉴딜사업 시·군 가이드라인을 배부하는 한편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의 2·3차 컨설팅,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토론회 3차례 이상 개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

난 7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공모 일정을 공모한데 이어 오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12월에 대상지를 발표한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자원이 풍부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에 최적화된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준비를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겠다"며 "방파제와 접안시설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며, 관광객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 확보해 전남 어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해조류로 '친환경 포장재' 생산 추진

마린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 (주)마린이노베이션과 '해조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나선다. <사진> (주)마린이노베이션은 해조류를 이용한 식품과 친환경 포장재 등을 생산한 바이오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합성수지에 의존하던 원료를 친환경 해조류 추출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마린이노베이션은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전남 해조류의 부산물 등을 활용한 펄프 공장과 포장지 생

산 공장 건립에 2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생산된 친환경 포장재를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할 예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해조류 양식기술과 원료공급 방안 등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전남 수산자원 상품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남 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사업의 성과에 이어 따른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19에 지친 심신 전남 숲길서 달래세요" 44개소 담은 화보집 제작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심신기능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숲길 명소 44개소를 담은 '남도 숲길을 걷다' 화보집을 제작했다. 전남도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치유의 숲 등에 대한 위생-정결상태를 점검하는 등 탐방객 맞이에 나섰으며, 숲에서 휴식과 산책을 통해 심리·육체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남도 숲길 명소 44개소를 소개한 책자를 제작했다. 숲속 대표적 건강물질을 함유한 피톤치드를 다량 함유한 편백나무는 전남에 전국 60%가 보전돼 있으며, 전남도는 도민 건강 증진과 블루이코노미 생태관광투어 활성화를 위해 편백숲에 지속적으로 숲길을 조성해 왔다. 일반적으로 피톤치드는 나무가 미생물균, 곤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알파 피넨, 캄펜 등 휘발성 기름으로 발산돼 유해균을 제거하거나 곤충을 회피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남도가 이번에 제작한 숲길 화보집은 대규모 편백나무 군락지인 순천 용계산과 광양 백운산, 고흥 팔영산·봉래산, 보성 활성산, 장흥 우드랜드, 강진 초당림, 영광 물무산·태정산, 장성 축령산 등에 대한 사계절 풍광과 인문·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담았다. 또 산림청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수상 받은 지역과 시·군의 특색 있는 대표 숲인 목포 유달산·돌곶산·영산기맥·트레킹길과 여수 전라선 옛철길·금모도 비렁길, 순천 조계산 천년 불심길, 나주 금성산, 광양 중흥사 토성길, 담양 관방제림, 곡성 태안사·동악산, 구례 화엄숲길 등도 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농번기 농촌일손돕기...1차 30명 무안 양파 수확 작업

전남도는 모내기과 양파·마늘 수확 등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정해 부족한 일손돕기에 나선다. 각 부서별 모든 직원의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게 되며, 군부대 등 유관기관·단체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지난 8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직원 30여 명이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강모씨 농가 4620여㎡ 규모의 양파 수확 작업을 도왔다. <사진>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맘때면 모내기과 양파 수확 등 여러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돼 일손이 많이 부

족하다"며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농촌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현재 전남지역 모내기는 3%, 양파 수확은 12%가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6개소 일제점검

전남도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유통·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전남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거검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전남에 소재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6개소다. 점검내용은 주로 판매시설 적합 여부를 비롯 약사·수의사·관리약

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성분함량 기준 적합여부,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유통 중인 항생제 80건을 비롯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해 위탁검사 기관인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 유효성분 함량 검정을 의뢰, 의약품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수거검사 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 폐기 처분하겠다"며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안전한 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보성 제암산·일림산 일대 산림생태자원 조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 희귀·특산 자생식물과 유용 산림자원 조사를 위해 보성군 제암산, 일림산 일대를 대상으로 봄·여름·가을 3차례에 걸쳐 산림생태자원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원도군 약산을 첫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개 도서지역과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탐사를 추진했다. 탐사를 통해 국내 미기록종인 통조화를 비롯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광릉요강꽃 등 11종,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금새우난

초 등 97종에 대한 신규 자생지 정보를 확보했다. 또 수집된 희귀·특산 식물 화상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남도의 희귀식물' 책자 발간 등 도내 산림자원 자생지 보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산림자원 탐사는 산림자원 보전과 숲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광주생명의 숲'과 함께 진행하며, 다양한 산림자원에 대한 분류와 동정은 호남식물연구소장인 유환춘 박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감사 부담 없이 코로나19 업무 전념하세요

전남도 '적극행정 지원' 시행

전남도는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감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과 경제 주체별 피해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요건 대폭 완화 ▲사전 컨설팅감사 신속 처리 ▲소극행정 행태 개선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체계 지원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 경제위기 극복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청된 사전 컨설팅 감사는 다른 사안에 우선해 5일 이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